

SAe.a.13



# 統一 韓國의 經濟 體制

- 바람직한 土地 制度를 中心으로 -

李 豊

한국 엔리 조지 협회 회장

韓國 엔리 조지 협會

■ ■ ■ ■ ■

## 차 례

- 
- 統一 韓國의 經濟 體制 / 1
  - I 모두가 살맛 나는 통일 / 3
  - II 불세비키 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자들의 변명 / 7
  - III 토지 중요성의 몰각 / 11
  - IV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토지 / 15
  - V 타락한 교회와 음울한 과학이 저지른 잘못 / 22
  - VI 죽어 버린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들 / 29
  - VII 마르크스주의의 과오 / 34
  - VIII 헨리 조지의 간구 : 나라이 임하옵시며 / 38
  - IX 땅에 떨어진 용 / 47
  - X 참다운 자유 시장 경제체제 / 52
  - 하나님의 백성과 토지 / 57
  - 예수원과 나 / 101
  - 남한도 달라져야 한다 / 107
  - 모두가 살맛 나는 통일을 위하여 / 113
  - 지주의 권세부터 꺾어라 / 117
  - 토지를 공유하자 / 121
-

# 統一 韓國의 經濟 體制

- 바람직한 土地 制度를 中心으로 -

李 豊

한국 헨리 죠지 협회 회장

\* 1994년 2월에 개최된 기독교 학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글임.

## I. 모두가 살맛 나는 통일

한반도의 남쪽에 사는 우리들은 동쪽 상간의 비극을 겪고 나서 한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며 눈물어린 노래를 부르면서, 적화 통일만 아니면 어떤 통일이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그런데 이제 좀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되자, “잘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통일의 방법도 시기도 이에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sup>1)</sup>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열강을 구슬리면서 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동독을 흡수해서 독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을 적에, 북쪽의 동포와 분단되어 살아 온 우리는 통일된 독일을 몹시 부러워하였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흡수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른바 ‘북방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공산권 사정에 정통한 신중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분수 넘치는 액수의 돈을 빌려 주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통일된 독일이 조세 부담 중대, 경제 성장률 저하, 실업자 증가 따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드러나자, 이른바 ‘통일 비용’을 빙자하여 흡수 통일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다운 통일의 뜻을 모르는 정치인들, 학자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때문에, 이제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곁들이지 않고 통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생각이 얕거나 감상에 젖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 “흡수 통일은 적어도 우리가 잘사는 통일을 지향하는 한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sup>2)</sup>는 통일원 관료의 주장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1) 具本泰, “南北이 다 잘사는 통일 돼야 한다.” 『新東亞』, 1993.9, 143쪽.

2) 위의 글, 147쪽.

대통령의 흡수 통일 반대 공언 때문에, 이제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은 몹쓸 구상을 하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다. '잘사는 통일'을 내세우는 위선자들이 입으로는 "참 통일론의 마당이 항상 열려 있고 가득 차 있어야 한다"<sup>3)</sup>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일 논단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숨어 있는 거짓은 참다운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폭로되어야 한다.

엄청난 통일 비용 때문에 흡수 통일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 세상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흡수 통일이건 그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은 없다.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을 이룩하여 그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득실만 따지는 사람일지라도 분단보다 통일을 소망할 것이다. 흡수 통일로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직 그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다. 혜택은 언급하지 않고 비용만 내세워 흡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통일은 반드시 '잘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통일의 길을 영영 가로막을지 모를 위험한 생각이 숨겨져 있다. 남쪽의 물질적으로 '잘사는' 우리가 북쪽의 경제적으로 '못사는' 저들과 섞여 살게 되면, '저들'은 좋겠지만 '우리'는 못살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이런 사람은 더 윤택한 경제 생활을 위해서라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소망하고 획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토는 겉보기에는 분단되어 있지 않으나, 그 땅 위의 수많은 것들이 나뉘어 있다.<sup>4)</sup> 부자들이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하여 조세를 부담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따로 떨어져 지낸다.

'지방 자치' 라는 그럴 듯한 명분 밑에서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비용 부담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급 지방 정부로, 이로부터 다시 하급 지방 정부로 전가된다. 공원과 공설 어린이 놀이터가 남아빠진 채 방치되어 있는데도, 사설 골프 클럽이나 테니스 클럽과 같은 여가 활동 단체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그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퀴벌레와 쥐가 우글거리는 남아빠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부자들은 그들만을 위한 동네를 따로 만들어 사설 도로, 사설 상하수도 따위를 설치하

3) 위의 글, 149쪽.

4) 이렇게 미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고발하는 책들 가운데 다음 책을 권하고 싶다.  
Re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고 경찰관 대신에 경비원을 고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지키게 한다. 부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고, 가난뱅이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뼈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힘든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재주를 부려도 다 쓰지 못할 돈을 땀흘리지 않고 만지기도 한다. 이런 나라는 겉으로는 통일되어 있으나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이런 나라를 우리 나라가 닮아 가고 있기에, '잘사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통일의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글러 먹은 주장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온다고 생각된다.

이 오만한 주장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일의 기회를 사람이 멋대로 흘려 보낼 수 있다는 한심한 착각이 들어 있다. 이미 붕괴된 소련의 불세비키 체제를 모방한 북한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가 붕괴되어 북한 동포들이 방황하며 남쪽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염원하는 날이 오더라도, '그들'과 함께 살면 '우리'만 못살게 된다고 속단하여 그들의 염원을 외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참다운 통일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엡 1:10)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마 5:9) 있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리와는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고후 6:14)는 말씀을 알고 있으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경세관에 입각하여 우리 겨레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잘산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 "악인의 피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시 1:1~2)가 복을 누리면서 잘사는 사람이다. 때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마 5:6)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마 5:10)가 복을 누리며 잘사는 사람이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잠 16:8)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사람은 의로운 통일이라면 어떠한 부담도 기꺼이 감수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불의한 통일이라면 이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상의 지상 목표는 없다”<sup>5)</sup>고 주장하는 무리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없다. 청지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계획 경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도, 남쪽의 시장 경제 체제가 북한 동포를 따뜻하게 품을 만큼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 통일에 찬성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대통령이 흡수 통일에 반대하면서 말했듯이, “자유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무슨 큰 매력이 있겠으며 가난밖에 나누어 가질 것이 없기에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 사회에 무슨 큰 매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자유와 빵이 있다 한들 사랑과 평화가 없는 사회가 무슨 가치를 지니겠는가!”<sup>6)</sup> 그가 주장하듯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정직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sup>7)</sup>이 올 것이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는 계명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는 명령이 준행되는 경제 체제가 남쪽과 북쪽에 다 수립되는 날에 참다운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는 남쪽의 기독교 신자들이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경제 체제가 남쪽에서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이 경제 체제가 가져오는 성공의 열매가 북한 동포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잠 16:7)는 말씀대로 모두가 살맛 나는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 16:6~9)

5) 장준하가 남긴 이 말은 다음 책에 인용되어 있다. 홍근수, 「지금은 통일할때」, 서울:한울, 1990, 33쪽.

6) 金泳三, 「2000 新한국」, 서울: 동광출판사, 52쪽.

7) 위의 책, 58쪽.

## II. 불세비키 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자들의 변명

한동안 우리를 통일의 희망에 달아오르게 했던 독일의 통일은 독일 사람들 자신의 노력에도 크게 힘입었지만, 소련과 동구에서 불세비키 체제가 붕괴한 획기적 사건에도 크게 힘입었다.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인간적·민주적 사회주의’를 제창하면서, 스탈린 체제를 소련 경제 발전의 ‘제동 장치’로 여겨 이를 타도하기 위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주도했다는 사실, 계획과 시장을 적절히 혼합하여 ‘민주적 중앙 집권주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해 보겠다고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가 그의 실각과 더불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소련의 위성국 노릇을 마지못해 해 오던 동독이 서독의 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투쟁이 사회주의의 패배와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난 줄로 생각하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같은 경솔한 사람들은 불세비키 체제의 붕괴가 ‘역사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조차 하였다. 후쿠야마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이념 전개가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했으며, 서구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정부의 최종적 형태라는 사실이다”<sup>8)</sup>라고 크게 그릇된 주장을 하였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기독교 신자들의 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계 21:1) 보게 되는 날까지 이런 거짓말이 들어올 수 없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회주의

8) 「미래의 세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 「新東亞」, 1990.12, 264쪽.

의 실패가 곧 자본주의의 승리로 비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회주의자들은 그릇된 사실 인식과 그릇된 동기에서 후쿠야마의 그릇된 주장을 논박하였다. 자본주의가 극복해야 할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가 인본주의적 진보 신앙이라는 일종의 이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세비키 체제나 그 어떤 다른 형태의 체제로 구현되더라도 그 내재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점에서 기독교 신자들과는 전혀 다르다.

소련과 동구에서 공산당이 몰락한 것을 보고 나서 “지적·사상적 고민”을 했다고 고백한 어느 사회주의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식 사고는 자기 환상적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식 사회주의’의 실패는 인정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의 별칭인 ‘자유 민주주의’의 실패가 이보다 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과 정책의 실효성이 다분히 감소되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마르크스의 철학과 가치관은 자기 수정의 과정이 요구될 뿐 근본적인 변화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 사회주의자는 “이기심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sup>10)</sup>,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 제도를 낳은 이기적 인간성을 개조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이상적 인간과 현실적 인간의 절충적 형태”를 수락하자는 제안을 다른 사회주의자들에게 하였다.<sup>11)</sup> “북쪽 사회와 그곳의 인간들이... 이기심을 극복한 인간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했다고 단정하기를 유보한<sup>12)</sup> 이 사회주의자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관련하여, “남한은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북한은 시장 경제를 수용하여 사회의 기본적 성격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이 사회주의자는 이기심이 회개와 거듭남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고귀한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음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등근 네모’와 같은 개념이어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그는 오타 시크, 오스카 랑게,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과 시장의 최적 혼합’이라는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

9) 李泳禧, “사회주의의 실패, 지식인의 사명”, 『新東亞』, 1991. 3, 317쪽.  
10) 위의 글, 319-320쪽.  
11) 위의 글, 322쪽.  
12) 위의 글, 323쪽.  
13) 위의 글, 324쪽.

장하여도 그런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는 까닭을 모르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에 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지는 몰라도, 국유를 기본적인 소유 형태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한편 그들이 부여하고자 하는 이윤 동기는 수급 사정에 따라서 변동하는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을 전제로 삼고 있고, 이는 다시 진정한 의미의 시장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시장은 생산 수단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거래를 요구하여 국유나 중앙 집권적 계획과 모순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sup>14)</sup> 이 점을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누구보다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른바 ‘통일 신학자들’도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이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 되었다고 해서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이 몰락했다고 단정되어서는 안된다”<sup>15)</sup>고 어느 통일 신학자는 주장하였다. 그는 “기독교는 지금까지 사유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사회·세계의 문제를 전혀 몰각하는 주장이다. 그것은 잘못된 사회·세계의 변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시키는 일이다”<sup>16)</sup>라고 크게 그릇된 주장을 한 다음에, “자본주의는 민족들의 평등·인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규정되어야 하며... 사회주의는 그러한 변혁 과정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민족·세계 질서 창출의 이념적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라고 주장하였다.

재산에는 하나님께서 사유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하시는 자본재와 사유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시는 토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유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된다고 주장하는 이 통일 신학자는,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8)</sup>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경적 경제관과 공산주의를 혼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거짓 탈을 쓰고 하나님의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무리도 있다.

목사의 직분을 맡은 어느 통일 신학자는 무신론에 빠져 있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14) 李 豊,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 스탈린 體制는 變革될 것인가”, 『經濟學研究』, 제 38집 제 2호, 서울·韓國經濟學會, 1990. 12, 419쪽.  
15) 박순경, 『통일 신학의 여정』, 서울: 한울, 1992, 99쪽.  
16) 위의 책, 172쪽.  
17) 위의 책, 98-99쪽.  
18) 위의 책, 171쪽.

블로흐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가 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신을 대치하였다”<sup>19)</sup>고 주장하고, ‘창조의 신’과 ‘출애굽의 신’을 구별한 다음에, 출애굽을 이끌었던 하나님은 “해방의 하느님인 동시에 평등과 공동체의 하느님, 즉 공산주의의 하느님이시다”<sup>20)</sup>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처럼 그의 글 속에서 여러 차례 묘사하고 있다.<sup>21)</sup> 참다운 목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यो 진리요 생명”(요 14:6)임을 가르쳐야 할 그가 블로흐의 말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자는 맑스가 열어 놓은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의 진리도 또 다른 진리도 없다”<sup>22)</sup>고 주장한 것은, 그리고 6·25 동족상잔을 일으킨 김일성이 죽자 남쪽에서도 조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가 기독교의 탈을 쓴 마르크스주의자임을 증명하는 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이 마르크스주의자는 남쪽 사회의 모순을 지적할 때에 보인 신랄함을 북쪽 사회의 모순을 지적할 때에도 보이기를 거부한다. 그는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결국 공빈주의밖에 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북한의 실상에 입각해서 논박하지 않고, “우리들의 북한관은 정부의 반복한 선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북한을 실제로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고 주장하여 간접적인 논박을 시도한다. 그가 북한을 다녀온 친북 인사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말은 그대로 믿으면서, 북한의 시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여 온 동구와 소련의 시민들이 북한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은 왜 믿으려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두가 살맛 나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잘사는 통일’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분단 상태의 지속을 획책하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가 성경적 경제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우기면서, 소련과 동구에서 몰락한 불세미키 체제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 체제에 관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남쪽의 자본주의 체제가 달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기독교 신자의 탈을 쓴 비겁한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통일 논의의 광장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19) 홍근수, 위의 책, 203쪽.

20) 위의 책, 162쪽.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함부 빌려 써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공산주의’라고 분별 없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Charles Avila, *Ownership: Early Christian Teaching*, London: Sheed and Ward, 1983, 152쪽.

21) 위의 책, 179-185쪽을 특히 참조하기 바란다.

22) 위의 책, 206쪽.

23) 위의 책, 85쪽.

### III. 토지 중요성의 몰각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이나 언론 기관이 공식적으로는 ‘잘사는 통일’을 내세우며 흡수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이나 언론 기관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북한의 공유화된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논의될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북 통일에 관련하여 북한의 토지는 대체로 사유화의 대상으로서 고찰되고 있는데, 이 점은 대부분의 토지가 절대적·배타적 사유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천박한 생각을 전제로 삼고 있다. 북한의 토지가 사유화될 경우에 남쪽으로 넘어와 살아 온 실향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예견되고, 이에 따라서 반환이나 보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만이 주로 ‘통일 비용’에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토지라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가 이렇게 낮고 천박한 수준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데에는 통일 독일의 동부 지역에서 나타난 경제적 곤경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호르스트 지버트는 옛 동독 지역의 경제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관차”라고 묘사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결정적 요인들의 하나로 불명확한 소유권을 꼽고 있다. 통일된 독일은 1933년부터 1949년에 이르는 기간에 소유권을 박탈당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는데, 동독에 소재하는 몰수된 재산을 옛 소유자에게 원상 회복의 원칙에 따라 돌려주려면 해당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그 위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소유권 반환에 관한 행정적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행정적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업과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없다. 지버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때문에 옛 동독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이 저해되기에 이르렀다.<sup>24)</sup>

지버트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 바에는 차라리 원상 회복 원칙을 포기하고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부동산과 기업들은 국가 소유로 간주해 버리고 이를 시장을 통해 새로운 소유주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서 “개인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시장 경제 체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출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하여 독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sup>25)</sup> 그러나 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어떻게든 궁극적으로 절대적·배타적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고정 관념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1994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체제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통일 이후의 법령 등을 참조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고,<sup>26)</sup> 「한국일보」는 사실을 통하여 이 발언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북한이 흡수 통일될 경우에 북한의 토지를 비롯한 공유 재산은 독일과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국유화한 다음에 합당한 원매자에게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북한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북한이 남쪽의 시장 경제 체제로 편입될 경우에 북한의 토지는 우선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유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토지 소유 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의 글 속에서도 발견된다. 독일식 통일 방식의 도입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월남자들과 월북자들의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나 보상 요구에 기인할 통일 비용을 꼽은 어느 학자는, 남쪽의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모를 상황을 만나면 통일보다 차라리 분단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말한 다음에,<sup>28)</sup> ‘소유 우선’의 토지 제도를 ‘이용 우선’의 토지 제도로 전전환시켜야 한다고<sup>29)</sup> 올바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토지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24) 호르스트 지버트, (허 선 옮김), 「통일, 그리고 경제의 모형」, 서울: 을유문 화사, 1993, 61-63쪽

25) 위의 책, 68쪽.

26) 「국민일보」, 1994. 1. 25, 1쪽.

27) 「한국일보」, 1994. 1. 26, 3쪽.

28) 金敏培, 「統一祖國의 土地所有制度에 관한 研究」, 269쪽.

이유로서 통일 비용 부담의 회피밖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옛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드 메지에르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가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토지 재산권 문제를 줄속으로 처리한 점이라고 고백하였는데,<sup>30)</sup> 이 말을 한 그나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이나 토지 문제가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토지가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게 만드는 점, 곧 토지는 도구, 기계, 건물과 같은 자본재와는 달리 사람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토지의 공유나 사유를 논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 속에서 찾아 보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외국 학자들의 글 속에서도 토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이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예컨대, 「기독교 신앙과 경제관에 관한 옥스포드 선언」<sup>31)</sup>에,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가 점점 더 시장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시장 경제가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만 여러 가지 모순을 품고 있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는데도, 이 모순의 극복에 토지 문제의 해결이 관련된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은 전혀 실려 있지 않다.

여러 나라의 기독교를 믿는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옥스포드 선언」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청지기 사명과 정의를 경제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따라야 할 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밝히면서, 정의롭지 못한 비인간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경제관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옥스포드 선언」은, 어떤 특정한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이기적 개인주의’와 ‘경직된 집산주의’는 모두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두 이념이 구현되어 있는 경제 체제는 성경적 경제관에 입각한 체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 경제관에 입각해서 경제 체제를 평가할 때에는 부를 정당하게 생산하는 능력과 부를 정당하게 분배하는 능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옥스포드 선언」은 빈곤을 초래하는 여러 원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부의 생산을 제약하는 요인과 부와 소득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요인을 중시하면서, 빈곤에 시

29) 위의 책, 270쪽.

30) 「조선일보」, 1994. 1. 26.

31) “The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Transformation, 1990. 4.

이 선언은 번역되어 다음 책에 실려 있다. 조상국 역, 「크리스찬 신앙과 경제학에 관한 옥스포드 선언」, 대구: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1.

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정의 구현 행동임을 강조하고, 개인·가정·교회·정부가 모두 빈곤 타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옥스포드 선언」은 정부를 흔히 경제적 강자들이 장악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소수 특권층을 옹호하는 가운데 권력, 탐욕, 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의가 구현되도록 정부 구조가 짜여지게 하는 일은 기독교 신자들의 책임이라고 선언한다. 「옥스포드 선언」은 소수 특권층을 옹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 법령, 규제에 토대를 둔 경제 체제는 창의력 발휘와 근면보다는 특권에 의존하여 이득을 보는 정의롭지 못한 현상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고 비도덕적인 체제라고 규탄한다.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는 점에서 인권의 근거를 찾는 「옥스포드 선언」은 생계 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권이 유린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생계 유지가 보장되는 사회 제도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할 경제관을 이렇게 잘 밝힌 「옥스포드 선언」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옥스포드 선언」은 구체적으로 부와 소득의 평등한 분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빈곤은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가, 소수 특권층을 옹호하는 체제를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생계 유지가 보장되는 사회 제도가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은, 「옥스포드 선언」이 레위기 25장 35~3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연약한 빈민들을 공동체가 책임감을 갖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고, 무슨 일로 어찌다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가난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게 하고 영영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8~34절에서 구체적으로 일러 주신 회년에 관한 율법과 명령과 법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 하나의 이 결정적인 과오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를 뻔했던 「옥스포드 선언」은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고나서도 자본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그 모순을 극복하고자 제3의 체제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선언으로 돌리고 말게 되었다.

#### IV.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토지

토지를 만든 사람이 없다는 엄연한 사실은 기독교 신자이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부정하고 싶어한다.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토지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은 토지를 영영히 팔고 사는 것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멋대로 해석하여 토지를 일시 소유하다가 파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시장’, ‘거래’, ‘화폐’, ‘가격’과 같은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들을 용인하셨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권리의 거래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셨다. “회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레 25:15~16)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다.

하나님께서 개인 토지 소유권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서 토지 사용권과 토지 수익권의 한시적 거래를 인정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땅에 자기의 노동을 투입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부

양할 산물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있다. 자연 재해, 질병, 부상, 나태 따위의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땅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다른 유복한 사람이 사용하여 수익을 보게 하는 대가로 생계 유지 자금을 얻는 길을 열어 두셨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과 유복한 사람 사이에서 허용되는 거래는 토지 소유권의 거래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을 통하여 획득될 산물과 생계 유지 자금을 교환하는 거래이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레 25:24)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어 토지 사용권과 수익권을 한시적으로 판 사람이나 그의 근족이 팔고 나서 지난 햇수를 계산하여 남은 값을 치르고 사용권과 수익권을 시한 전에 되찾는 길을 열어 두셨고 (레 25:25~27), 미리 되찾을 힘이 없는 빈민에게는 희년의 도래와 더불어 그에게 원래 맡겨진 토지의 사용권과 수익권이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레 25:28).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토지가 사람이 자연 산물에 노동을 투입하여 만든 자본재나 내구 소비재와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함은, 가옥의 무르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낡아 없어질 성내의 가옥에 대해서도 일년 안에 무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나(레 25:29), 이 짧은 시한이 지나고 나면 그 가옥이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가옥의 ‘영원한’ 소유가 실제로는 가옥의 ‘한시적’ 소유임을 알 것이다. 요즈음 말로 가옥과 같은 내구재는 ‘감가 상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구재의 소유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토지는 ‘감가 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서 유리되는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토지가 절대적, 배타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다.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sup>32)</sup>을 쓴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미국의 「독립 선언」을 인용하여 “인간은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다. 이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sup>33)</sup>고 말한 다음

32) 헨리 조지, (김윤상 옮김), 「진보와 빈곤」, 서울: 무실, 1989.

33) 이 말이 담긴 「독립 선언」에 따라서 독립한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재산의 평등한 분배”를 도모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것이나 다 “사악한 계획”이라고 말하여 후대의 입법위원들을 협

에,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면 이 권리도 부정된다. 토지는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 물자를 얻는 유일한 터전이기 때문이다.”<sup>34)</sup>라고 말했다.

‘평등’과 ‘자유’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나서 오는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레 25:10)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토지 위에서 노동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 함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람이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면 자유도 박탈당하여 짐승보다 못한 노예가 된다는 점은, 톨스토이가 이렇게 생생하게 적어 놓았다: “이들은 영하 20도에서도 외투도 없이 36시간 동안 20개씩의 돌을 등짐에 져서 나르고 있었다... 도대체 그들이 하는 일이란, 노예 시대의 아무리 몰인정한 노예주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의 노예에게 시키지 않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것이었다. 노예주는 고사하고 마차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말에게 그런 힘든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 뻔하다.”<sup>35)</sup> 톨스토이는 각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인 땅의 일정 부분을 생존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잔인한 행위가 그칠 때까지, 어떤 정치적 개혁도 사람들에게 자유와 복지를 주지 못할 것이다.”<sup>36)</sup>라고 내다보았다.

하나님께서 민족 공동체에 토지를 맡기시고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평등하게 토지를 사용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셨음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된 이스라엘 지파별·가족별 토지 배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수 23:4)고 말하여 평등한 토지 배분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

박함으로써, 미국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모순되는 개념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Fred Harrison, *The Power In The Land*, New York: Universe Books, 1983, 16쪽.

34) 헨리 조지, 위의 책, 232쪽.

35) 레오 톨스토이, (정현구·김의훈 옮김), 「우리 시대의 노예 제도」, 서울: 무실, 1992, 26-27쪽.

36) 위의 책, 139쪽.

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수 23:6)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좌로 치우쳐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나, 우로 치우쳐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생계 유지 기본 수단의 평등한 배분을 가로막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나,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체제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는 귀한 말씀이다.

회년을 지켜 불평등과 부자유가 영구히 지속되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 시대에만 준수되어야 하고 신약 시대에는 무시되어도 좋은 명령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救贖)에만 관련된다고 우기고 싶은 사람들과, 구약 율법을 신약적인 구속 원리에 대한 예표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고 싶은 사람들은<sup>37)</sup>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 주석가들이 모두 동의하듯이,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에 나오는 ‘회년’을 가리킨다.<sup>38)</sup> 예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그의 제자라면 누구나 이 땅 위에서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나 선포할 수 있는 ‘자원적(自願的) 회년’이다. 예수께서 이 ‘새로운’ 회년을 선포하셨을 때부터, 대지주이기도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권력 기반을 경제적 측면에서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십자가 처형의 모의를 시작하였다.<sup>39)</sup> 그들은 어떠한 형태로건 회년이 선포되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게 되거나 몰수당하게 될 것만 두려워했지,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도적질 한 죄와 재물 이라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법도를 싫어하여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면, 어김없이 징치하실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6절에서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 청종치 아니하면,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고 20절에서 경고하셨으며, 그래도 청종치 아니하고 대항하면,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낚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26절에서 경고하셨고, 그래도 청종치 않고 대항하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29절에서 끔찍한 경고를 하셨으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홀출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33절에서 두려운 경고를 하셨다.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청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그대로 징벌하셨다. 예컨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으리라”(왕상 21:19)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합은 끔찍한 징벌을 받았다(왕상 22:38).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징벌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겨레가 겪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음을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토지 제도 때문에 임진 왜란이나 병자 호란 따위를 겪으면서 우리 겨레의 파종은 실제로 헛된 일이었고,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굶주렸으며, 토지를 독점한 소수 양반 계층의 가렴주구 때문에 끝내 조선 왕조는 일본 제국 주의의 칼에 멸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해주와 간도로 도망하였거나 일본 본토와 남양 군도로 끌려 갔다.<sup>40)</sup>

하나님께서 민족 공동체에게 맡겨 주신 토지가 소수 개인들의 독점물이 되도록 한 요인이 정의롭지 못한 구약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예컨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토지를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가 애굽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서술한 부분(창 47:13~26)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정치적 강자가

37)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 책을 권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정옥배 옮김),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서울: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89.

38) 앙드레 트로끄메, (朴惠連·梁明洙 옮김), 「예수와 非暴力 革命」,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6, 31쪽.

39) 대천덕, 「신학과 사회」, 대구:기독교대학설립 동역회 출판부, 1994, 9쪽.

40)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통일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이 부끄러운 수난의 역사를 외면하고 일제에서 해방되자마자 분단된 우리나라의 비극을 주변 열강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통일을 바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는 무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통일 신학 동지회 엮음, 「통일과 민족 교회의 신학」, 서울:한울, 1990.

정치적 약자의 토지를 강탈하여 절대적·배타적 소유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왕정을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 주신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왕정 제도가 정의롭지 못함을 알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왕이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삼상 8:14)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래도 청종하지 않은 무리들에게 사무엘은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삼상 8:18)고 경고하였다.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다. 예컨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로부터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8)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하박국으로부터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 진 자여 너를 몰 자들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합 2:6~7)는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고가 무시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김없이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절대적·배타적 토지 소유권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을 징벌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이라는 점에 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 계명이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7)는 계명과 함께 재산의 사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토지를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 독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된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 3:19)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이 노동해서 생산한 것은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토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토지 사유의 금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토지 공유도, ‘공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소수의 특권 계층이 토지의 대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토지 위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대부분을 멋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sup>41)</sup> 하나님의 토지를 도적질하 죄악을 초래

41) 이와 같은 경우는 수도원 공동체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수도원 공동체의 지도자가 재산 공유를

할 수밖에 없다. 소련과 동구의 불세비키 체제는 실제로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불세비키의 선전에 속은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받는 줄 알고 지주 계급의 타도에 가담하였으나, 토지의 국유 또는 집단적 소유라는 허울 좋은 제도 속에서 공산당 당료와 정부 관료가 새로운 지주 계급으로 둔갑하여 막대한 지대를 징수해서 경제 계획의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멋대로 쓰는 비극을 겪고 말았다.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는 경제 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경제 체제들은 흔히 생산 수단이 주로 사유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와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공유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체제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두 체제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소수의 개인들이나 특권 계층이 독점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불세비키식 사회주의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보다 먼저 붕괴하였고,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는 모면하고 있지만 ‘진보 속의 빈곤’, ‘불황과 물가 상승의 병존’과 같은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불세비키 체제처럼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토지 이외 생산 수단의 사유와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에 힘입어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불평등한 분배에 기인하는 사회 계층간 알력 속에서도 불세비키 체제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최저 계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하여 온 점에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도 불세비키 체제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은 그 어느 성경 말씀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지시하여 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지기 사명을 완수하고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평등하게 쓰는 체제로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시 24:1)

위장된 착취 수단으로 삼은 실례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록 존슨, (최태영 옮김), 「소유와 분배」, 서울:대장간, 1990, 218쪽.

## V. 타락한 교회와 '음울한 과학'이 저지른 잘못

소수 지주들의 토지 독점이 거대한 죄악이라는 점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초대 교부들도 잘 알고 있었다. 예컨대, 안티옥에서 활동한 크리소스톰(Chrysostom)은 하나님께서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맡겨 주셨음을 강조한 다음에 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땅이 함께 나누어 써야 하는 것일진대, 너희 이웃들은 땅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써야 할 것을 너희들만 향유한다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sup>42)</sup>

가이사라의 주교였던 바실(Basil)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라고 주셨기에 그저 사람들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엄밀하게 구별한 다음에, 후자는 절대로 온당하게 사유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먼저 차지함'에 의해서건 '힘으로 정복함'에 의해서건 사유 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강도질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sup>43)</sup>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즈(Ambrose)는 땅을 강탈한 사람들은 매일 도덕질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주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땅은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쓰라고 창조된 것이다... 너희 부자들아, 어째서 너희들은 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당하게 갖고 있는가?”<sup>44)</sup>

암브로즈에게서 세례를 받고 뒤에 히포의 주교가 된 어거스틴(Augustine)은 온 세계

42) Charles Avila, 위의 책, 132쪽.

43) 위의 책, 135쪽.

44) 같은 곳에.

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나 다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부유하다는 까닭에 채워야 할 위장을 두 개 갖고 있는가?”<sup>45)</sup>

초대 교부들은 절대적·배타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로마법만 사악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적질한 토지 재산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양도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축적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속법도 사악한 것으로 보았다. 상속 재산으로 놓고 먹으면서 가난이 게으름에서 온다고 떠드는 부자들에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일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들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으로 받지 않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게으러서 가난한가? 강도를 당해서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sup>46)</sup>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자선을 베풀지 않는 까닭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가 자기 아이들을 위하여 아끼고 있기 때문이다.”<sup>47)</sup>

초대 교부들은 착취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적질당한 공유 재산을 되돌려 줄 때까지는 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초대 교부들은 지주들이 차지했던 토지를 내놓게 할 경우에 아무런 보상도 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암브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을 그에게 돌려 줄 따름이다.”<sup>48)</sup>

소수 지주들의 절대적·배타적 토지 소유를 초대 교부들이 저주한 까닭은 그것이 부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결과를 낳은 데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않은 초대 교부들은, 주후 4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말세의 징조를 느끼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당시의 상황을 참도록 하는 그릇된 일에 종말론을 쓰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개혁할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올바른 일에 종말론을 썼다.<sup>49)</sup>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주후 4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조차 지키지 않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그 제도적 요소를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교활하게 써 먹기 전인 3세기 중반에

45) 위의 책, 136쪽.

46) 같은 곳에.

47) 위의 책, 137쪽.

48) 같은 곳에.

49) 위의 책, 143쪽.

이미, 기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웃들과 나누어 쓰는 코이노니아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었다.<sup>50)</sup> 하나의 제도가 되어 버린 교회의 지도자들은 3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 활동을 이끌어 온 데 지친 나머지, 복음을 좀더 신속하게 전파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로마 제국 정권과 손을 잡는 결정적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sup>51)</sup>

어둠침침한 카타콤에서 휘황찬란한 바티칸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거처가 옮겨가는 동안에, 교회 재산은 나날이 늘어났고, 드디어 교황이 제후들 위에 군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비밀이 되어 버렸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의 뜻을 새기며 사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옛바알의 후손들이, 나뭇의 포도원을 빼앗은 폭군 아합의 처 이세벨의 족속들이 페니키아에서 카르타고로 가져 간 대지주 제도가 로마의 토지 제도로 된 것을<sup>52)</sup>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알 수 없게 되었다. 대천덕 신부가 말했듯이, "수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20세기의 전환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를 선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지주들이 가장 큰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다.

"토지의 가치를 개인이 전유하는 것은", 프레드 해리슨(Fred Harrison)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이 일은 상호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소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목적으로 부를 생산한다. 토지 독점은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창조적 과정을 손상시킨다. 독점자는 자연이 품고 있는 자원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는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 이외에 아무런 대가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낸 부의 일부를 요구한다. 이는 법률이 정당화한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이다."<sup>54)</sup>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프레드 해리슨은 토지 독점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커다란 죄악이라

50) 위의 책, 148쪽.

51) 위의 책, 153쪽.

52) 대천덕, 위의 책, 83쪽.

53) 위의 책, 50쪽.

54) Fred Harrison, 위의 책, 19쪽.

는 점을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임은 잘 지적하였다.

토지 독점이 강도매들의 소행과 다름이 없음을 톨스토이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물과 공기와 태양 빛과 같이 토지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독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톨스토이는 물과 공기와 햇빛은 빼앗을 수 없지만 토지는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독점 재산이 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소수 지주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길을 빼앗고서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는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강도매들의 권리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sup>55)</sup>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를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법률'이라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지주들이 그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명목상으로는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법들은 모든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sup>56)</sup>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 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sup>57)</sup>

이 점은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가정 주부, 공무원, 기업가, 교육자,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바보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엄마, 땅 사면 쉽게 돈 번대"하는 아이들이 있고, '복부인'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복덕방 문을 닦게 하는 가정 주부들이 많으며, 자기가 미리 사 둔 땅 부근에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할 도로, 교량, 주택 단지, 공항 따위가 자리를 잡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땅이 없어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연구 개발 결과를 상업화하지 못한 채 목을 매 죽는 중소기업가들이 있는 반면에, 땅 때문에 돈을 벌고서는 기업 활동을 잘해서 돈을 번 것처럼 으시대는 대기업가들이 있으며, 학교 시설은 30년 전이나 큰 차이 없게 방치하여 놓으면서도 땅을 많이 사 두는 대학 재단이 적지 않고, 대통령의 솔선 수범에 밀려 마지못해 재산 공개를 하면서 가진 땅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비싼 땅을 싸구려 땅처럼 보이게 하려고 온갖 잔 재주를 부린 정치인들이 많은 것이다.

지주들이 멋대로 제시하는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는 '음울한 과학'이라고 불리는

55) 톨스토이, 위의 책, 132쪽.

56) 위의 책, 78쪽.

57) 헨리 조지, 위의 책, 136쪽.

경제학의 시조 스미스도 잘 알고 있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 환경이 개선되는 일은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실질 지대를 올리고 지주의 부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며 노동을 사거나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지주의 힘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sup>58)</sup> 프레드 해리슨이 말했듯이, “스미스는 지대가 불로 소득이라는 점을 조금도 착각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 그는 지대가 국부에서 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지대야말로 공공 부문 지출 대상으로서 적합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독특하게도 잘 부합하는 자금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sup>5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영국 의회를 지배했던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의 부과에 반대했다. 그럼으로써 스미스는 그가 꿈꾼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토지 독점이라는 암세포를 품은 위태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되는 것을 막는 일에 등을 돌렸다.

지주들의 권세가 무서웠던지,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주들의 토지 독점에 따르는 폐해를 막아 줄 것이므로 토지 독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롭게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뒤를 이을 경제학자들을 속였다. 이신론(理神論)에 젖어 하나님의 섭리를 그릇되게 알고 있었던 스미스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지주들을 옹호하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땅이 모든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질 상태와 거의 똑같이 생활 필수품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알고 하는 일도 아니지만,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증식에 필요한 수단을 공급한다.”<sup>60)</sup> 스미스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건 말건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여 놓으셨다고 착각을 했었던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땅을 소수의 높은 영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시면서 분배 과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잊으셨거나 버리시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제 몫을 찾아 향유한다.”<sup>61)</sup>

58)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275쪽.

Fred Harrison, 위의 책, 25쪽에서 재인용.

59) Fred Harrison, 위의 책 26쪽.

60)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Classics, 1969, 304쪽. Fred Harrison, 위의 책, 24쪽에서 재인용. 거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적인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조화되게 하여 주는 ‘시장 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설명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 Adam Smith, 위의 책, 304-305쪽. Fred Harrison, 위의 책, 24-25쪽에서 재인용.

스미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우즈바르트(Goudzwaard)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방식대로 인간의 운명1을 결정하시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매 계기마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sup>62)</sup>이 아니다.

스미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허깨비를 보게 만든 이신론은, 하우즈바르트가 말했듯이, 르네상스 세계관·자연법 개념·공리주의·계몽주의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다.<sup>63)</sup> 이 다섯 가지 인본주의적 지주 위에 구축된 자본주의 체제의 문화 속에서 ‘진보’라는 우상이 하나님 대신에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제적·기술적 발전의 잠재력을 절대화시킨 자본주의 문화는 “처음에는 인간을 자신의 운명의 주권적인 지배자의 위치에 올려 놓은 것처럼”<sup>64)</sup> 보였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우상의 위치에 올려진 ‘경제적·기술적 발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헨리 조지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경제학자가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나타나서, ‘경제 발전 속의 대량 실업’이나 ‘진보 속의 빈곤’과 같은 수수께끼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은 경제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갈 4:8)을 하였고, ‘음울한 과학’이 진리인 줄 착각한 사람들도 그런 종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교회 속에서만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 속에서는 ‘음울한 과학’을 가르치는 경제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갈 4:9)고 묻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까닭을 알고 그 나름대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한 하우즈바르트는, 구조적 실업의 증가와 같은 심각한 증세 때문에 진보라는 우상이 죽어 자본주의 문화가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에 부여하신 의미인 율법 혹은 규범성을 지향”<sup>65)</sup>해야 공허감에서 벗어나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우즈바르트는 하나님의 어떠한 율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그가 진단한 자본주의의 고질인 ‘구조적 실업’을 고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62) 하우즈바르트(김병연·정세열 옮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9. 61쪽.

63) 위의 책, 78-79쪽 및 81-8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64) 위의 책, 123쪽.

65) 위의 책, 340쪽.



그는 “구조적 실업의 증가는 바로 자업자득인 것이다. 그것은 공리주의적 진보 개념, 즉 노동의 최소의 희생으로써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대한 ‘진보’의 직접적 증거다”<sup>66)</sup>라고 진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기업가들이 선택해야 할 방안으로서 “고용을 축소하여 소득을 늘이든가, 아니면 소득을 줄임으로써 고용을 늘이든가 하는 방안”<sup>67)</sup>을 내놓았다.

하츠바르트가 모르고 있는 훌륭한 방안을 100여 년 전에 헨리 조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그리고 오늘날 하츠바르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는 “토지의 개인 소유권이 허용되는 부자연스러운 상태 하에서는... 상업적 노동 수요를 경감시킴으로써 임금을 낮추고 단순 노동자들을 굶어 죽게 하거나 거지가 되게 한다.”<sup>68)</sup> 그러나, 헨리 조지처럼 마음이 청결한 학자만이 통찰할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정상적인 사회 상태에서는 노동 절약적 개선은 인간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아니하고 극대화할 수가 있다.”<sup>69)</sup> 그가 말했듯이, “자신의 몰자 취득 능력이 커지면 수요도 커진다. 부의 생산력이 부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경우는 없으며 더구나 부에 대한 욕구는 충족될수록 더 커진다. 그렇다면 노동 절약적 기술 발달의 효과는 부의 생산의 증대로 나타난다고 하겠다.”<sup>70)</sup>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경우에만 ‘기술 진보에 따르는 구조적 실업’이라는 수수께끼가 풀린다는 점을 하츠바르트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헨리 조지는 벌써 알고 있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하츠바르트가 ‘진보 속의 빈곤’을 해결하는 열쇠를 찾지 못한 것은, 그에게 참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그도 케인즈가 말한 ‘죽어 버린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잠 3:5~7)

66) 위의 책, 208쪽.

67) 위의 책, 326쪽.

68) 대천덕 엮음, 「토지와 자유」, 서울: 무실, 1989, 160-161쪽.

69) 위의 책, 160쪽.

70) 헨리 조지, 위의 책, 112쪽.

## VI. 죽어 버린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들

케인즈는 「일반 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정치 철학자들의 견해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갖는 위력에 의문을 던진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예언하는 바이다... 그들의 견해는 옳을 때나 그를 때나 흔히 이해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참으로, 그들의 견해 말고 세상을 좌우하는 것은 거의 없다. 자신들은 어떠한 지식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고 믿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흔히 죽어 버린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sup>71)</sup> 이 유명한 말을 한 케인즈는 “길게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다”는 그 자신의 말대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말 그대로, 죽어 버린 케인즈도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케인즈 경제학을 따른다”는 프리드먼의 말이 이를 웅변으로 알리고 있다. 케인즈 경제학의 울타리 안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츠바르트도 ‘죽어 버린 경제학자’ 케인즈의 ‘노예’이다.

이른바 ‘케인즈 혁명’이 서방 세계 경제학계에서 일어난 다음에,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혀를 찰 한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개탄하는 경제학자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생산 함수의 정의를 내렸는데, ‘케인즈 혁명’ 이후에 생산 함수는 단순화되어 자본과 노동만으로 정의되어 왔다. 도시에 기반을 둔 산업 생산의 역동적 과정에서 토지의 중요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잘못 판단한 케인즈와 그의 후예들은 그들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서 토지와 자본재를 한 데 묶어 ‘자본’이라는 허깨비 개념을 만들어 내었

71) 대니얼 벨-어빙 크리스톨 엮음, (이 풍 옮김), 「위기에 선 경제 이론」, 서울:고려원, 1984, 6쪽 재인용.

다.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발견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공박을 격퇴하기 위하여 대량 실업과 반복되는 불황을 물리치는 방도를 강구하는 데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비슷하게 노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고 오산하였다.<sup>72)</sup> 유효 수요를 정부가 증대시켜 고용 기회를 늘림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생산량과 노동 투입량의 관계에 집중하는 단기적 분석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는 모두 '자본'으로 처리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

노동하여 번 돈으로 축적한 화폐 자본으로 토지도 살 수 있고 기계나 건물도 살 수 있다는 피상적인 인식에 힘입어, '자본'이라는 허깨비 개념은, 노동의 산물인 자본재는 소비재와 더불어 절대적·배타적 사유 재산이 될 수 있으나 노동의 산물이 아닌 토지는 절대적·배타적 사유 재산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도, 토지 투기로 맘 홀리지 않고 막대한 돈을 모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은 만들 수 없는 토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람이 만든 자본재를 합부로 섞어 '자본'이라는 허깨비 개념을 너무나 자주 쓰게 됨에 따라서, 토지의 특징과 중요성은 망각 지대에 머물러 왔다. 이 때문에, 프레드 해리슨이 말했듯이, "토지를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 과정에 대하여 파괴적인 영향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자본가들이 졌다. 토지 독점자들의 활동은 무지의 장막 뒤에 몰래 숨었고, 모든 증세를 빠짐 없이 점진하기를 거부한 경제 질환 의사들에게는 상관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sup>73)</sup>

이리하여 경제 질환의 의사 노릇을 해야 할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앓고 있는 증병의 원인을 모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무력한 경제학을 희생시킬 방안에 관한 논문들을 싣고 있는 「위기에 선 경제 이론」(The Crisis in Economics)은 신고전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제 이론은 분명히 곤경에 빠져 있다고 선언하였다.<sup>74)</sup> 경제학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확인되었다.

72)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흔히 '자본'이라고 약칭되는 '자본재'를 토지와 한 데 묶어 '생산 수단'이라고 부르고, 이 '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되었다가 상품으로 전환된 다음에 화폐로 전환되는 것을 '자본'이라고 부른다.

73) Fred Harrison, 위의 책, 14쪽.

74) 대니얼 벨, 어빙 크리스톨 엮음, 위의 책, 8쪽.

더 타임즈(The Times)의 편집인이었던 리스모그는 고별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풍토병과 같은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시대에... 1930년대 이래 최악의 세계적 불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케인즈에게서도, 프리드먼에게서도, 마르크스나 그 밖의 누구에게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sup>75)</sup>

이렇게 말한 사람이 헨리 조지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소개하는 경제학 교과서는 거의 없으며, 그의 경제관을 어쩌다 소개하는 경제학설사 교과서나 토지 경제학 교과서는 대개 그것을 왜곡하면서 실천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성서적 경제관과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알리기 위하여 이국 땅인 우리 나라에서 수많은 글을 쓰고 연설을 한 대천덕 신부 (Rev.R.A.Torrey III)가 말했듯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강한 지주 계층으로부터 헨리 조지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요 '낡은 것'이라고 가르치라고 꼬드김을 받아 왔고, 그래도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아깝거든 잠자코 있으라는 협박을 받아 온 데 있다.<sup>76)</sup>

소수의 토지 독점을 보호하는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아무런 위협도 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제도의 철폐를 외롭게 주장하는 소수의 조지주의자들은 아직 대단한 꺾박을 받고 있지 않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썩어하도다"(미 6:12)는 말씀의 뜻을 지주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순진한 조지주의자들은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가서 6장 12절의 주석을 통하여 대천덕 신부가 말했듯이, 지대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불로 소득을 보는 "부자들은 건전한 경제학의 가르침이 무시되는 한 행복하다. 만일 그 가르침이 실제로 그들의 제도를 쥐고 위협하게 되면 그들에게 잠재해 있던 포악성이 드러난다. 만일 거짓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들은 피를 흘릴 것이다."<sup>77)</sup>

계속 무시되고 있는 헨리 조지의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토지'와 '지대'가 어쩌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경우에도 그 의미나 중요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헨리 조지가 통찰한 바는 간접적으로도 경제학도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음울한' 경제학계의 현실이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새뮤얼슨은 꽤 많이 팔리는 교과서 「경제학」에서 다음과 같이 엉터리 주장을 함으로써 경제학에 발을 들여 놓는

75) Fred Harrison, 위의 책, 19쪽.

76) 대천덕 엮음, 위의 책, 191쪽.

77) 대천덕, 위의 책, 175쪽.

학생들의 눈을 처음부터 흐리게 하는 중대한 과오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 “리카도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참으로 계급 이익의 갈등을 과장하였다. 인구의 증가가 에 이커당 지대의 상승을 의미할지는 모르지만, 토지로 귀속되는 몫이 GNP 가운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함에 틀림 없다는 그들의 생각은 잘못이다.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순수한 지대가 GNP와 N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하하여 왔다.”<sup>78)</sup>

새뮤얼슨의 이 말은 그도 스미스나 리카도나 그 밖의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지대의 법칙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새뮤얼슨은 농업 부문에서만 지대의 법칙이 주목할 만큼 성립하고 상공업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속단을 내리고 있다. 그는 이 속단의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민 총생산에서 지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 통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것 같은데, 그의 눈에 비친 통계가 진상을 왜곡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통계 당국이 지대로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이 지대 소득 전체의 조그마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지대 소득의 대부분은 법인 기업체나 개인 사업체의 이익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sup>79)</sup>

새뮤얼슨과 같은 경제학계의 거물조차도 헨리 조지 경제학의 핵심을 스치고 지나간 반면에, 처칠이나 손문과 같은 정치인이나 톨스토이와 같은 문호는 그 핵심을 잘 알고 있었다.<sup>80)</sup> 예컨대 처칠은 영국 총리가 되기 훨씬 전인 1909년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지대가 불로 소득임을 밝혔다. “여러분이 어디를 살펴보면, 어떤 사표를 고르건, 여러분은 토지 독점자가 자기 몫으로 알짜를 걷어 가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기업 활동에, 물질적 진보의 모든 과정에 착수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어느 곳에서나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공공 단체는 토지를 열등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또는 이따금 보듯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 가치의 대가로

78) Paul Samuelson. *Economics*. Tokyo: McGraw-Hill Koga Kusha, 10th edn., 1976, 733쪽. Fred Harrison, 위의 책, 86쪽에서 재인용.

79) 미국의 저명한 조지주의자 스티븐 코드 (Steven Cord)가 이끄는 경제 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cs)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대가 모두 토지 가치세로 징수된다면 적어도 국민 소득의 24%나 된다. 이는 그가 펴내는 정기 간행물 *Incentive Taxation*, August 1989에 소개되어 있다.

80) 손문이 제창한 삼민주의에는 헨리 조지의 경제관이 반영되어 있다. 대천덕·고왕인 엮음, 「두 체제를 잇는 가교」, 서울:무실, 1989, 43~9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톨스토이도 헨리 조지의 경제관을 받아 들이고 이를 전파하는 데 노력 하였다. 이미 인용된 그의 책 「우리 시대의 노예 제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리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sup>81)</sup>

그러나 처칠은 총리가 되고 나서, 막대한 불로 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영국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주들의 권세를 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칠처럼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지주 계층과 타협하고 더 나은 체제의 구축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명심하여야 할 점이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눅 16:13)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  
(신 8:17~18)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 11:13~16)

81) Fred Harrison, 위의 책, 1쪽.

## VII. 마르크스주의의 파오

케인즈는,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어 버린' 마르크스의 '노예'였다. 케인즈가 즐겨 쓴 '자본'이라는 허깨비 개념과 똑같은 '생산 수단'이라는 개념을 방대한 '자본론'을 통하여 만든 경제학자가 바로 마르크스이기 때문이다.

'생산 수단'이라는 허깨비 개념을 만든 마르크스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산물인 내구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토지와 묶어서 '재산'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는데, 헨리 쥘지가 강조했듯이, 이 때문에 "재산권의 정의성과 부정의성을 또는 정당성과 부당성을 논의할 때 사고의 혼란이 생긴다."<sup>82)</sup>

마르크스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지대가 불로 소득의 원천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가 리카도의 후예답게 지대의 법칙을 잘 알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더불어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한, 따라서 가치의 생산이 발전하는 한,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생산도 발전한다. 그러나 후자의 발전에 비례하여 땅을 독점함으로써, 그리하여 지대와 토지가격 자체를 올림으로써 이 잉여 가치로부터 점점 더 많은 몫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이 토지에 생긴다."<sup>83)</sup> 그리고 그는 불로 소득에 의존하는 기생 계급 지주가 생산에 기여하는 자본가와 다름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가는 이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개발 과정에서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지주는 이 성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도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 가운데에서 점점 더 큰 몫을

82) 헨리 쥘지, 위의 책, 178쪽.

83) Karl Marx, *Capital*, London:Lawrence & Wishart 1962, Vol III, 623-4쪽. Fred Harrison, 위의 책, 86-87쪽에서 재인용.

착복하기만 하면 된다."<sup>84)</sup>

이처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빈곤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진짜 자본가의 착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의 불로 소득 수취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장 경제 체제의 모순이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짜 자본과 토지가 한 데 섞여 '생산 수단' 곧 '자본'이라는 엉터리 개념을 이루고, 진짜 자본가와 지주가 한 데 묶여 '자본가'라는 허깨비 개념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진짜 자본가의 대부분이 지주이기도 해서 자본과 토지를 구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마르크스도 똑같은 이유로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르크스가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를 모두 '생산 수단' 곧 '자본'으로 묶은 까닭은 그의 소외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이다.

마르크스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자아 실현을 하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욕을 갖고 있는 존재로 파악했다. 그는 사람이 소유욕에 사로잡혀 재산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강제적 노동을 하게 될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이처럼 첫 단계에서는 '소외'를 각 인간의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파악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비약적인 논리 전개를 하면서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파악된 '소외'를 사회적 문제로 둔갑시켰다. "만약 생산자가 자기 노동의 산물, 자기의 객체화된 노동을 자기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적대적 타자적 객체로 경험한다면 그는 그 산물, 그 객체를 소유하는 강력한 적대적 타자적 인간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sup>85)</sup> 개인의 정신 속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두 가지 형태의 인간, 곧 창조적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만 강제적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소유욕을 끊임 없이 채우려고 남의 노동을 착취하고자 하는 '자본가'를 마르크스는 그의 공상 속에서 억지로 분리하여, 사회 속으로 따로 따로 내보내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의 공상 속에 존재하는 사회는 착하기만 한 '노동자'와 악하기만 한 '자본가'가 대립하여 투쟁하는 사회가 되었다. 마르크스는 그의 공상 속에 존재하는 이 사회와 그가 실제로 관찰한 자본주의 사회가 동일하다고 결정적인 오판을 한 다

84) 위의 책, Vol III, 623쪽. Fred Harrison, 위의 책, 41쪽에서 재인용.

85)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Historish-Kritische Gesamtausgabe*, Berlin:Marx-Engels Verlag, dritte Abteilung, 90-91쪽. 김정기, 「마르크스주의의 기독교적 조명」, 서울:성광문화사, 1990, 44쪽 재인용.

음에,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이 지양되려면 각 인간이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소유욕의 대상인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유 재산 제도가 철폐되면 생산력이 완전하게 개발되어 소외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사회가 된다고 보았다.

소외의 극복과 자아의 해방이 개인적 책임인데도 사회적 책임으로 둔갑시킨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에 의하여 생산력을 박탈당한 비인간화된 노동자는 이를 탈환하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해서라도 투쟁을 해야 하며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착취 계급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계급 투쟁론을 전개하였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난한 마르크스는 그의 혁명 이념 속에 '노동자의 타락과 해방', '노동자 해방에 요구되는 피', '소외 없는 이상적인 사회' 따위의 종교적 개념을 담아서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는 구조와 논리의 측면에서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 86) 목회자나 신학자의 탈을 쓰고 기독교에 침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인가' 하는 의문을 남게 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외면한 채 여러 가지 유사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우기고, 양자 사이의 대화와 타협과 평화 공존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와 비슷하다. 마르크스주의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계몽주의적 진보 신앙에 입각하여 있다.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 기인하는 노동자의 고통 중대가 자본가 계급의 소멸을 초래함으로써 소외된 인간이 해방되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오만한 인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다 같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각각 인간의 서로 다른 측면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처럼 타협이나 평화 공존을 못하여 왔다. 인간 사회 전체의 의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에 의존하는 사회주의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의 수립을 도모하면서 사유 재산의 폐지와 시장 기능의 소멸을

86) 김정기, 위의 책, 6쪽.

바람직한 일로 여기는 반면에, 개인의 의지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요소까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을 통하여 배분되는 경제 체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인본주의의 피를 나눈 이복 형제로서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하려는 공산당을, 특히 폭력 행사를 불사하는 공산 세력을 자본주의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점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참다운 기독교 신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기독교에 침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면서도 목사라는 탈을 쓴 사람이나<sup>87)</sup> 북한에서 김일성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없이'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sup>88)</sup> 남쪽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의 반공 이념과 참다운 기독교 신자들의 반공 자세를 구별하려 들지 않고, 반공 때문에 남북 통일이 가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떠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 투쟁하므로, 교회에 침투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투쟁하고 교회 밖에 있는 공산 세력과 투쟁하며 교회 안에서 개인적 안일과 평안만을 구하는 무리들과 맞서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는 무리들과 맞서야 하므로, 험하고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온갖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오만한 그들 자신의 뜻이 이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헛된 투쟁을 하다가 좌절을 겪고 있으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3)

87) 통일 신학 동지회 엮음, 위의 책, 14쪽.

88) 박순경, 위의 책, 130쪽. 이와 같은 부류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기에, 무신론에 빠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성경적 경제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 VIII. 헨리 조지의 간구. “나라이 임하옵시며”

센 프란시스코의 선지자 헨리 조지는 1889년 4월 28일 주일에 글래스고우에서 설교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오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설혹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는 못할지라도,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보상은 그것이 적든 많은 간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사악한 악마의 손아귀에서 이 세상을 구해 내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 세상을 정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감동의 보상일 것입니다.”<sup>89)</sup>

하나님을 믿은 헨리 조지는, 진보를 이상으로 섬기는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진보를 자극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의욕이라고 보았고, 진보를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이라고 보았다.<sup>90)</sup> 헨리 조지에 따르면, “정신력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릴 때에 한하여 자유롭게 되어 고차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어울림으로 인해 노동의 분업이 가능하고 다수인의 협력에 의해 생기는 경제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울림은 진보의 제1의 요인이 된다.”<sup>91)</sup> “그리고 인간에게 평등권을 부여하는 도덕의 법칙이 존중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신력이 대립 속에서 낭비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평등은 진보의 제2의 요인이 된다.”<sup>92)</sup> 그래서 헨리 조지는 “평등 속의 어울림이 진보의 법칙”<sup>93)</sup>이

89) 대천덕 위음, 위의 책, 91쪽.

90) 헨리 조지, 위의 책, 219쪽.

91) 위의 책, 220쪽.

라고 말했다.

헨리 조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동에 기생하여 따로 잘살려고 하는 소수의 지주들에 의하여 “토지가 독점된 사회에서의 물질적 진보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고 이러한 경향이 계속 진행되면 문명은 하강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다”<sup>94)</sup>고 말했다. 그는 인류 문명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 ‘진보와 빈곤의 동반’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였고,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발견하였다.

헨리 조지는 자기 시대의 경제학이 부의 증대 과정에서 불황, 실업, 빈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까닭이, 한 가지 단순한 진리가 간과된 데에 있음을 알았다. 그 진리는 “지대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했을 때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에 의해 정해진다”<sup>95)</sup>는 ‘지대의 법칙’을 말한다. 이 진리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생산이 얼마나 나오건 간에 두 생산 요소에 임금과 이자로 지불되는 댓가는, 노동과 자본이 지대를 공제하고 난 후의 잔액 - 즉 무지대 토지에서의 댓가 또는 사용되고 있는 가장 열등한 토지에서의 댓가 -에 의해 정해진다.”<sup>96)</sup>는 ‘임금·이자의 법칙’으로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임금·이자의 법칙’에서 임금은 “노동이 지대를 지불할 필요없이 개방된 자연적 생산력의 최고점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sup>97)</sup>는 ‘임금의 법칙’이 바로 파생된다. 지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토지 위에서 전개되는 생산 활동의 경우에,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진다면 임금은 올라갈 수 없다.

생산물 가액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이 진보하는 나라에서 상승하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하는 열쇠를, 헨리 조지는 생산력을 높이는 요인들이 곧 지대의 비중을 높이는 요인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찾아내었다.

생산력을 증대시키면서 이와 아울러 지대로 분배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요인으로서 우선 인구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대의 법칙’을 세운 리카도는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인구 증가를 지대 상승의 유일한 원인으로 꼽으면서, 인구 증가에 따

92) 같은 곳에.

93) 같은 곳에.

94) 위의 책, 229쪽.

95) 위의 책, 89쪽.

96) 위의 책, 91쪽.

97) 위의 책, 99쪽.

라 식량 증산이 필요하게 되어 종전보다 더 못한 토지로 경작 토지가 확장되거나 같은 토지에서도 더 생산성이 낮은 점으로 생산이 확장되어 우등지에서 지대가 상승한다고 설명하였다. 헨리 조지는 리카도의 설명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인구 증가는 한편으로는 생산이 열등지로 확장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업의 확대를 통하여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라 열등지가 사용되고 지대의 비중이 커지며 임금의 비중이 작아지더라도, 임금의 절대액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98)</sup>

과거에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던 인간의 특별한 능력이 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분업의 확대에 발휘될 수 있음으로써 생산력이 높아지고 농업 이외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 지대가 상승하는 점이,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농업 부문에서 경작 한계가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sup>99)</sup> 헨리 조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헨리 조지는 리카도처럼 인구의 증가에서만 지대 상승의 원인을 찾지 않았다. 헨리 조지는 노동 절약적 기술의 발달도 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노동 절약적 기술의 발달로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감소 또는 실업이 초래되기 쉽다는 측면만 주목하는데, 헨리 조지는 벌써 오래 전에 “노동의 목적은 한 가지 형태의 부만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맞는 모든 형태의 부를 얻는 데”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 “그 중 어느 한 가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 발달은 다른 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sup>100)</sup>는 점을 통찰하였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어떤 형태의 노동을 절약하게 해 주는 기술의 발달이 여러 산업 부문에서 생산력을 높이고 생산 활동을 증대시켜 토지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sup>101)</sup>

헨리 조지는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 발달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규모 감축과 조세 경감, 노동자의 근면과 절약, 교육 수준의 전반적 향상처럼 생산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들도 지대의 상승을 초래함을 밝혀 두었다.<sup>102)</sup>

98) 위의 책, 109-111쪽.

99) 위의 책, 116-122쪽. 앞에서 언급했듯이 폴 새뮤얼슨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말을 했다.

100) 위의 책, 112쪽.

101) 위의 책, 114쪽.

102) 위의 책, 제11장 및 제15장.

“생산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선에 머무는 것은,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sup>103)</sup>는 결론으로 헨리 조지는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었다.

헨리 조지는 경제학에 몸을 바친 학자들이 ‘임금의 법칙’과 마주쳐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임금의 법칙에 의해 도출되는 현실적인 결론이 두려워서 임금의 법칙을 제대로 인식하고도 이를 여러 곤란한 문제를 푸는 열쇠로 이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은폐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위대한 진리는 이를 거부하고 짓밟는 시대에 대해서는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칼이 된다.”<sup>104)</sup>

헨리 조지는 그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물질적인 진보는 인간의 토지에 대한 의존 관계를 없애지 않으면 오히려 토지로부터 부를 생산하는 힘을 보태 줄 뿐이다.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물질적 진보가 극도로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 때 물질적 진보는 토지 가치를 올리고 토지 소유자의 힘을 강하게 해 줄 뿐이다.”<sup>105)</sup>

헨리 조지는 인류 문명의 진보에 기인하는 지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토지 투기가 불황을 야기하는 과정도 규명하여 놓았다.<sup>106)</sup> 헨리 조지의 설명에 따르면, 토지 투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현재의 생산 조건 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최저 수준의 대가조차 지불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특정 토지의 유희와 더불어 관련 부문의 생산 중단을 야기한다. “어떤 부문에서 이러한 생산 중단(또는 생산 감소)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수요 중단 (또는 수요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도 생산이 억제된다. 이와 같은 마비 현상은 공업과 상업의 조직망을 따라 확산되며 모든 곳에서 생산과 교환이 부분적으로 조화를 잃게 되어 과잉 생산 또는 과소 소비라고 표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sup>107)</sup> 헨리 조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불황이 투기적 지대 상승이 가라 앉을 때까지, 인구 증가나 기술 발달 등에 의해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투기적 지대 수준을 새로운 정상적 지대 수준이 넘어

103) 위의 책, 131쪽.

104) 위의 책, 99쪽.

105) 위의 책, 136쪽.

106) 위의 책, 제13장.

107) 위의 책, 125쪽.

서게 될 때까지, 또는 노동과 자본이 견디다 못하여 과거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생산에 참여할 때까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작용하여 새로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속됨을 통찰하였다.<sup>108)</sup>

불황에 관한 헨리 조지의 설명에는 수십년 뒤에 케인즈가 제시한 유효 수요 이론이나 승수 효과 개념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 수요의 부족을 일으키는 토지 투기가 불황의 근본 원인이라는 정확한 진단까지, 케인즈와 그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내리지 못하여 온 놀라운 진단까지 들어 있다.

헨리 조지는 그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시대에 활동한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진리는, 노동을 투입하여 부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장악하면 노동자의 생존에 소요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노동 생산을 장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내재하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의 사고에 오류가 널리 퍼져 있어서 문명 세계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이러한 악을 해명함에 있어 갖가지 측면을 다 검토하면서도 단 한 가지 즉 정답을 빠뜨렸는데 있다. 사람들이 품고 있는 오류와 이를 유도하는 이론의 배경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도사리고 있다. 이 힘은 모든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사상을 형성하는 정치력이며 또 거대하고 지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력이다.”<sup>109)</sup>

이 힘은 토지가 그 소유자에게 주는 힘이다. 아마 이 힘에 도전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꼭 사로잡혀 있었기에, 고전학과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도 ‘정답’을 빠뜨려 경제학을 위기에서 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 지주에게 주는 권세의 크기와 성격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지주의 힘과 자본가의 힘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생산 수단 소유자의 힘을 꺾으려고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주창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절도와 같게 여겼다. 그는 노동 조합의 힘을 믿고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뼈아픈 충고를 하였다. “임금 투쟁을 할 때 잊어서 안되는 사실은 투쟁의 당사자가 누구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이 아니다. 투쟁의 한 쪽

108) 같은 곳에.

109) 위의 책, 135쪽.

은 노동자이지만 그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이다. 투쟁이 노동과 자본 간에 이루어진다면 두 당사자의 투쟁 조건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될 수 있다. 자본이 버티는 힘은 노동보다 약간 더 강하기 때문이다. 사용되지 않는 자본은 댓가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자꾸 줄어든다. 거의 모든 형태의 자본은 재생산이 계속되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노동처럼 굶는 일도 없고 자본처럼 가치가 줄어드는 일도 없다. 토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물론 토지 소유자도 불편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불편할 정도이면 자본은 소멸되는 정도이고 노동자는 굶는 정도에 이른다.”<sup>110)</sup>

자본주의 체제가 앓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헨리 조지는 그 질병을 치료할 처방도 정확히 내렸다. 헨리 조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뿐, 즉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빈곤을 타도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 밖의 어떠한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 희망이 없다.”<sup>111)</sup> 소수의 토지 독점을 초래하는 절대적·배타적 토지 사유의 철폐를 주창한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사유 토지의 몰수를 주장하지 않고, 토지 가치세의 부과를 통한 모든 지대의 공동체 귀속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지대를 토지 가치세로 거두게 되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이 된다고 말했다.<sup>112)</sup>

이와 아울러 헨리 조지는 다른 조세를 철폐하면 생산 활동이 증대하여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 이외의 세원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의 철폐가 현실성이 있는 바람직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sup>113)</sup> 그리고 헨리 조지는 스미스 이래 경제학자들이 견지하여 온 조세의 원칙에 비추어, 토지 가치세가 생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징수될 수 있으며, 확실하게 부과될 수 있고, 불공평한 다른 세금들과는 달리 불로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가장 정당한 최선의 조세임을 밝혔다.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세가 전가될 수 없다는 점, 지대 전액을 조세로 징수하는 경우에 토

110) 위의 책, 143쪽.

111) 위의 책, 149쪽.

112) 위의 책, 151쪽.

113) 같은 곳에. 톨스토이는 ‘우리시대의 노예 제도’가 토지와 세금과 재산에 관한 정의롭지 못한 법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는데, 헨리 조지의 주장대로 토지 가치세가 부과되어 다른 조세가 철폐되고 토지 가치세 때문에 토지가 ‘재산’으로서 갖는 의미를 상실한다면, ‘우리시대의 노예 제도’도 폐지될 것이다. 톨스토이, 위의 책, 7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를 법률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토지가 자기에게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지만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소멸을 통해 토지 가치의 하락이 초래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토지 가치가 사회가 존속하는 한에서만 존속하고 사회가 커짐에 따라 함께 커지기 때문에 다른 세원이 없어도 정부의 유일한 세원으로서 부족하지 않다는 점도 밝혀 놓았다.<sup>114)</sup>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세가 지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대의 몰수임을 부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주들이 토지 사유제의 실질적인 철폐에 직면하게 되면 완전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며, 지주의 보상 요구를 공동체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sup>115)</sup> 지대가 불로 소득이라는 점까지는 모처럼 이해하게 되었는데도 이 불로 소득을 공동체에 귀속시키려면 그 전에 토지 가치 보상을 지주에게 해 주어야 옳은 줄로 생각하는 답답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고, 헨리 조지가 살던 시대에도 많았다. 헨리 조지는 그런 사람들이 "토지 사유제가 오래 존속해 왔기 때문에 이를 철폐하면 이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경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에게 손실을 준다는 생각 그리고 토지를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회복시키면 정당성에 의문이 없는 다른 재산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는 생각"<sup>116)</sup>을 갖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헨리 조지는 이 그럴 듯하지만 부당한 생각에서 나온 보상 옹호론을 꼼짝 못하게 논박하였다.

토지 가치세의 실시와 더불어 지주들의 보상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경우에 정부 예산 총액이나 국민 소득 전부를 보상 자금으로 써도 어렵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헨리 조지는, 지주들로부터 정부 당국이 시장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면서 미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는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에, "정부는 토지 소유자가 현재 받는 지대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전세금을 미리 내고 토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셈"<sup>117)</sup>이 된다는 점과 이 때문에

114) 위의 책, 제17장.

115) 위의 책, 제21장. 헨리 조지의 뒤를 이어 토지 가치세의 도입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브라운(Harry Gunnison Brown)은 지대 수취권이라는 기득권을 몰수하는 토지 가치세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주 계급이 몰수하여 온 소득을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몰수당하기를 거부하고 나설 따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Harry Gunnison Brown, *The Case For Land Value Taxation*,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80, 22쪽.

116) 위의 책, 185쪽.

"정부는 매수 직후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이 되어 지대를 받으며 또 받은 지대보다 많은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역할을 하는 결과가"<sup>118)</sup> 초래됨을 강조하였다.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의 완전 환수가 아니라 미래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를 주장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를 논박하면서, 밀의 방안이 실시되면 지대의 투기적 상승은 중단될 것이지만, 토지 소유자는 현재 누리고 있는 엄청난 불로 소득을 앞으로 계속 향유한다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sup>119)</sup>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연제로 삼아 1887년 5월 8일에 뉴욕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던 헨리 조지는,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유에 의한 불로 소득 지대의 수취가 가장 나쁘고 큰 도적질임을 여러 가지 명언으로 밝혀 두었다. "토지의 절도는 말이나 돈의 절도와는 달리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일 매시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도에 해당된다."<sup>120)</sup> "지대는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이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마다 지대가 빠져 나간다."<sup>121)</sup> "지대의 사유화는 과거의 절도일 뿐 아니라 현재의 절도이며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어린이에게서 천부적인 권리를 뺏는 행위이다."<sup>122)</sup>

이렇게 엄청난 도적질이 벌어지는 이 땅 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도리가 없다. 이 엄청난 도적질은,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생기는 악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부당한 사회 제도에 의해 생기는 악이다. 이 악을 제거하면 진보에는 커다란 자극이 생긴다."<sup>123)</sup>

헨리 조지는 사회 제도의 개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비행으로 돌려야 할 악덕과 불의와 고통과 타락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이비 기독교야말로 무신론자보다도 더욱 나쁜 것입니다."<sup>124)</sup> 헨리 조지는 그가 발견한 진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117) 위의 책, 187쪽.

118) 같은 곳에.

119) 우리 나라에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소수의 토지 사유는 방치한 채 토지 투기만 막으면 한국 경제의 큰 병 하나가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밀이 옛날에 보인 착각과 똑같다.

120) 위의 책, 188쪽.

121) 위의 책, 189쪽.

122) 같은 곳에.

123) 위의 책, 231쪽.

124) 대천덕 위음, 위의 책, 83쪽.

가짜 기독교 신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헨리 조지의 예견은 오늘날에도 적중하여, 토지 가치세와 같은 사회 제도를 성서에 있는 “회년에서... 직접 도출해 내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론이라 할찌라도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다”<sup>125)</sup>는 유감스러운 주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나와 있다. 회년에 관한 율법을 비롯한 구약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실제 원인은 잘못된 사회 구조에 있고,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사회 구조를 더 좋은 것으로 대체시킬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 대부분의 병폐는 신속히 제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sup>126)</sup> 라는 하우즈바르트의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헨리 조지가 주창하는 토지 제도 개혁을 논박하는 데 빌려 쓸 말이 못된다. 헨리 조지는 지대의 공동체 귀속을 위한 토지 가치세의 도입으로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 “우리 사회 대부분의 병폐가 신속히 제거” 되리라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제 자체에 오류가 있고 그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주체인 우리 인간은 책임이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sup>127)</sup>라는 하우즈바르트의 말도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은 인본주의자를 비판할 때에 인용되어야 할 말이지,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그릇된 사람을 나무라는 헨리 조지를 논박하는데 쓰일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헨리 조지는 그가 발견한 경제적 진리를 받아들여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비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고통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의 끝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옳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지금은 서로를 잘 모를지라도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함께 모이게 된다.” 헨리 조지가 말한 ‘어디선가’는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쓴 사람들이 육신의 껍질을 벗을 때에 돌아갈 본향이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다 (히 11:13~16).

125) 김천수, “회년의 의미 - 기독교적 사회관의 한 시도”, 『새로운 知性』, 제1권 제 3호, 31쪽.

126) 하우즈바르트, 위의 책, 24쪽.

127) 같은 곳에.

## IX. 땅에 떨어진 용

우리 나라는 한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듭함으로써 온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나라는 극심한 국제 경쟁력의 약화와 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겪으면서 ‘세 마리 용’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지령이 처지로 떨어졌다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많은 관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지만, 아무도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계속 경제 발전의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 까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대라는 불로 소득이 소수의 지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 세 나라의 토지 제도가 크게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sup>128)</sup> 우리 나라만 먼저 처진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지 못했다. ‘수출 입국’이나 ‘기술 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경제

128) 대만의 경우에는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은 손문의 삼민주의를 따르는 국민당 정부가 미흡하나마 토지 가치세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홍콩의 경우에는 조차된 토지가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함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거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90%가 넘는 토지가 국유화되어 계획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10% 미만의 사유 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다.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Wei-Shin King, “Land Value Taxation in Taiwan: Present Status”, in Isaac M. Ofori (ed.), *Real Property And Land As Tax Base For Development*, Taoyuan, Taiwan: Land Reform Training Institute, 1992, 209-239쪽; 李性旭·韓相國·崔明根, 『土地稅制의 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서울:韓國租稅研究院, 1993, 52-71쪽; H.C.Y.Ho, “Real Property Taxation in Hong Kong”, in Isaac M.Ofori(ed.), *op. cit.*, 355~377쪽; Lim Soo Chin, “Property Tax Administration in Singapore”, in *op. cit.*, 379~407쪽; Lim Chong Yah et al., *Policy Options For the Singapore Economy*, Chapter 4 Land Utilization Policy, Singapore: McGraw Hill, 1988, 75-109쪽.

전문가들은, 왜 기술 개발의 강화, 교육 투자의 증대,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과 같은 수단들이 제대로 구사될 수 없는지를 잘 모르는 채 계속해서 이러한 수단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스미스, 마르크스, 헨리 조지와 같은 석학들이 모두 통찰하였듯이, 어느 나라가 분배 측면에서 정의로운 제도의 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측면에서만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강구하는 모든 수단은, 토지 가치를 높여 결국 소수의 지주들에게 귀속되는 지대라는 불로 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위기에 선 영터리 경제학에 물든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경제 전문가들은 그 대부분이 이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잘못된 토지 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채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여 왔기 때문에 땅 값이 폭등하였고, 이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을 다시 확충하려면 폭등한 가격으로 땅 값을 보상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재정 자금이 토지 가치세로 조달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부담이 되어 근로 의욕을 꺾는 가운데 힘들게 확충될 사회 간접 자본이 다시금 땅 값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한심한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경제 활동 인구의 3%가 민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고<sup>129)</sup> 토지 투기를 할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려 있는 나라에서, 공부를 게을리한 사람들이 토지 투기로 땀흘리지 않고 떼돈을 만들어 놓고 먹는 나라에서,<sup>130)</sup> 누가 힘든 공부를 하여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인지를, 누가 힘든 기업 활동에 전념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은 대기업이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만 꾀하고 부동산 투기의 주범 노릇을 한다고 비난을 퍼붓기만 하였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박사 학위까지 받아 놓고서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미래를 교육 투자에 걸 수 있는지를 우리 나라의 정책 수립 담당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은 뼈빠지게 일만 하고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사치 속에서 빈둥거리는 데 대해 불만을 갖게 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 지적 능력의 확산은 임금의 일반 수준을 높이지 못하며 최하층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한다"<sup>131)</sup>는 진리를 우리 나

129) 토지 공개념 연구 위원회, 「연구 보고서」, 1989.

130) 지가 상승에 기인하는 불로 소득은 1988년에 212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GNP의 1.7배나 되며 근로자 총소득의 4.2배나 된다. 김태동·이근식,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서울:비봉출판사, 1989, 56-6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31) 헨리 조지, 위의 책, 141쪽.

라의 지도층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대통령의 재산 공개 솔선 수범으로 말미암아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막대한 불로 소득 지대를 수취하는 지주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고 나서도, 우리 나라의 지도층은 재산 공개만 하면, 금융 실명제만 형식적으로 시행하면, 투지 투기만 법령과 행정력으로 규제하면, 토지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줄로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조차 토지 투기가 한국 경제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만병의 근원인 것"<sup>132)</sup>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토지 투기를 하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토지 사유와 독점이 허용되어 불로 소득 지대가 지주에게 부당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나온다는 점은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동안 무역의 급속한 성장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실현했던 우리 나라에서 새삼스럽게 '국제화'라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요술 방망이처럼 여겨지게 되자, 노사 분규와 같은 다른 요인 때문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장 부지 가격 때문에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외국 첨단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경제 특구를 만들어 공장 부지 매입에 따르는 문제, 노사 분규에 따르는 문제 따위를 해결해 주자는 기막힌 제안조차 나오고 있다.<sup>133)</sup> 외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쉽사리 이전해 주지 않을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우리 나라 전체를 '경제 특구'로 만들어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공장 부지 매입 문제나 노사 분규로 골머리를 앓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고 토지 투기에 한 눈을 팔지 않게 하라는 제안은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로버트 라이시 (Robert B. Reich)가 밝혀 놓았듯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는 사람들과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서 경쟁력을 유지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고자 세계적인 기업 활동망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변모하였다.<sup>134)</sup> 라이시는 '새로운' 문제를 알아내는 사람들, '새로운' 문제를 푸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이윤 창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을 한 데 묶어 '상징 분석자들'(symbolic analysts)이라고 부르면서<sup>135)</sup>, 미국의 경우에

132) 金泳三, 위의 책, 139쪽.

133) 「조선일보」, 1994. 2. 12, 3쪽.

134) Robert B. Reich, 위의 책, 제7장~10장, 81-11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상징 분석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임금이 낮고, 땅값이 싸며, 기계를 싼 값에 빌려 쓸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으로라도 생산 기반을 옮길 태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라이시는 미국 안에서 다른 시민들과 가능하면 분리되어 살고자 하는 '상징 분석자들' 때문에, 일상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몸으로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복지를 위하여 세금을 많이 부담하기를 거부하는 '상징 분석자들' 때문에, 미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미국 시민들은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sup>136)</sup>

라이시의 통찰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일러 준 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점에서는 도움을 주기보다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라이시는 실질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의 통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욱더 심하게 분열될 미국 사회의 진정한 통일을 갈망하는 듯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을 하나님 말씀의 전파와 미국 시민들의 도덕성 회복 및 토지 독점을 비롯한 각종 독점을 허용하는 제도의 개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고작 '상징 분석자들'이 그들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고 그들의 재산과 가족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 다른 시민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과 그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애국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찾고 있다.<sup>137)</sup>

그뿐만 아니라, 라이시는 '상징 분석자들'에게 높은 소득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영 기법이 조만간에 '낡은'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과 그들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갖게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이 남보다 많이 번 돈으로 땅을 사 두어서 불로 소득인 지대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그들도 결국 지주들의 권세 밑에서 시달리며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못했다. 라이시는 토지 독점의 철폐와 지적 재산권 독점의 규제를 통하여 모든 미국 시민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일에서 미국의 밝은 미래를 찾으려 하지 못했고, 그래서 소수의 미국 시민들이 지적 재산권의 독점을 통하여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다수 미국 시민들이 빈곤이나 실질 소득의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진퇴양난 국면을 타개할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말았다.

135) 위의 책, 제14장, 171-18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36) 위의 책, 제23장-25장, 268-31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37) 위의 책, 303쪽.

첨단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 자체는, 일찍이 헨리 조지가 강조했듯이, 토지 제도가 정의롭게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못된다.<sup>138)</sup>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첨단 기술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반쪽의 진리는 알고 있어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정의로운 분배 질서의 확립이라는 다른 반쪽의 진리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느 자유 기고기는 수많은 신문 독자들에게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 벌어지는 까닭은 “한 마디로 한국의 노동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는 그럴 듯한 진단을 한 다음에, “스스로 더욱 많이 착취당하겠다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동자의 ‘被착취권’을 빼앗아 가겠다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는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배의 정의를 외치기 전에 분배할 이윤부터 창출하라”는 오래전부터 어디선가 많이 들어 왔던 낱아빠진 구호를 다시 외쳤다.<sup>139)</sup>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외국의 노동자와 로봇에게 빼앗기고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느냐,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말하여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이 기고가가 기껏 내놓은 해결 방안이, 일자리를 지키려면 외국 노동자보다 싸게 노동력을 팔리는 것밖에 못되는 까닭은, 정의로운 분배와 효율적인 생산의 유기적 관계가 토지 독점이나 그밖의 독점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그가 전혀 모르고 있는 데 있다.

이처럼, 분단된 상태로 남쪽만 잘살 수 있게 하는 방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나라 지도층이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 체제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성경적 경제관과 헨리 조지의 경제학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올바른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디어 성경적 경제관에 입각한 헨리 조지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138) 일찍이 헨리 조지는, 특허법과 같은 것에 의해 제한적인 독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발명이나 기술 개발이 지주에게 이득을 주지 않고 발명가나 기술 개발 주체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헨리 조지, 위의 책, 114쪽.

139) 金相基,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조선일보」, 1994. 1. 14, 5쪽.

## X. 참다운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통일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방도를 알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경제 성장의 둔화라는 쓰린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 과업이 완수되기 전에 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붕괴시키심으로써 이 체제를 닮은 북한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가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로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동안에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를 실패로 끝나게 하심으로써 물과 기름이 섞이듯 계획과 시장이 섞인 혼합 경제 체제가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로 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보다 먼저 독일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셔서 이를 통하여 모순이 많은 자본주의 체제가 주축이 되는 흡수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크스주의가 먼저 인류 역사의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경적 경제관과 헨리 쥘의 경제학이 드디어 인류 역사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더 전파된다면, 우리 민족이 성경적 경제관과 헨리 쥘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땅 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무리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서 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각성한다면, 그래서 성경적 경제관에 입각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가 수립되며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민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통일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 세계 온 족속이 부러워하는 통일을, 우리 겨레가 모두 살맛 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멋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구축되어야 할 경제 체제의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체제의 골격을 묘사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는 노동의 산물인 자본재의 사유와 자유롭게 활동하는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을 통해서 교환함으로써 이웃 사랑과 자아 실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가치가 공동체로 귀속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가 구축되려면, 북쪽의 체제와 남쪽의 체제가 모두 근본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이 변혁은, 이론적으로만 따질 때에는, 남북 통일 이후에 이루어져도 되고 남북 통일 이전에 이루어져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북 통일 이전에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통일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변혁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남쪽에서 먼저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남쪽의 '북부인'들이 북쪽 땅에 올라가서 토지 투기를 하러 돌아다니는 꼴을 북쪽 동포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칫 잘못하여 북쪽 땅이 다시 사유화되는 경우에 발생할 막대한 보상 비용을 남쪽 동포들이 감당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40)</sup>

통일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남쪽의 체제 변혁은 토지 가치세의 도입을 그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남쪽에서는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므로 토지 가치의 공동체 귀속을 위하여 억지로 토지 공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 지주에게 귀속되어 온 지대가 모두 공동체로 흡수되도록 하는 토지 가치세로, "현재의 관습이나 사고방식에 필요 없는 충격을"<sup>141)</sup> 주면서까지 법률적인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토지 공유화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가치세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쪽의 가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는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뀔 것이다. 프레드 헤리슨이 말했듯이, "토지 시장에서 독점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유자들이 서로 계속해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140) 정진경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원로 100여 명은 1994년 3월 23일에 채택한 「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에서 남한한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모든 재산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가 수락된다면, 남한한 기독교인들이건 처음부터 남쪽에서 태어난 기독교인들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절대적·배타적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41) 헨리 쥘, 위의 책, 150쪽.

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해마다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sup>142)</sup>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롭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온 토지 독점을 제거하기 위한 토지 가치세의 도입이 단순한 조세 개혁으로 가볍게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조세의 도입이나 철폐와는 달리, 토지 가치세의 도입은 경제 체제의 기반인 소유 제도를, 그것도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토지 소유 제도를 변혁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토지 가치세 도입의 이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쉬운 편이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기득권을 누려 온 지배 계층의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명에 못지 않게 힘든 일임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sup>143)</sup>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토지 가치세의 도입은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남부 지역의 노예 제도를 무너뜨린 혁명과 비교할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혁명”<sup>144)</sup>이다.

남쪽에서 토지 가치세가 도입될 정도로 국민의 도덕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이 향상된다면, 근원적 불로 소득인 지대와 성격이 비슷한 이른바 ‘권력 지대’도 ‘작은 정부’의 구성과 선거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부문보다 잘 할 줄 모르는 일을 놓기는 싫어하고 민간 부문이 할 수 없는 일이나 하기 힘든 일을 떠맡기는 싫어하며 쓸데 없는 절차를 만들어 인가, 허가 따위를 ‘검은 돈’과 바꾸는 공무원들과, 제정되어야 할 법률은 제정하지 않고 제정되지 말아야 할 법률은 제정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지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의 구성을 위한 행정 개혁과 ‘돈 안드는 선거’의 실시를 위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지도층이 아직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붕괴되고 말 스탈린 식 체제를 변혁하여 살아남고자 한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공유화된 토지 이외의 모든 생산 수단을 사유화해야 하고, 사유화된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시장의 형성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유

142) Fred Harrison, 위의 책, 35쪽.

143) 이 점은 토지 공개념을 ‘철저히’ 반영하지 못한 종합 토지세와 토지 초과 이득 세를 ‘철저히’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면을 쓴 지지자들이 보인 저항적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어느 교수가 토지 관련 세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 앞에서 대통령이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사유 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증과하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욕심과 무지를 아울러 드러내는 광경을 필자는 직접 본 일이 있다.

144) 톨스토이, 위의 책, 158쪽.

로 남아 있는 토지를 사용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과 기업체들이 토지 사용료를 시장 기구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sup>145)</sup> 국가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 사용료를 관료나 당료가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북한 체제가 급속히 자발적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련 불세비키 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능동적 변신을 통하여 급속히 성장하는 후발 개도국으로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중국 체제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2년에 쉰젠 특구에서 실험적으로 토지 사용자로부터 사용비를 징수한 다음부터, 공유화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토지 사용권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유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개혁을 하여 옴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시켰고, 도시 건설 자금의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 사용에 대한 외자 기업의 우려를 불식하여 경제 개방을 촉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6)</sup> 북한이 이 점을 주목하여 체제 변혁의 핵심 내용으로 삼는다면, 이는 바람직한 남북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쪽에서 토지 가치세가 도입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북쪽에서 공유 토지의 사용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북한 지도층이 각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 주셨던 방식으로 세계 열강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미 4:3) 날이 오게 하시어 남북 통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을 3:10)라고 우리 민족에게 명령하시어 우리 민족이 열강의 저항을 물리치고 통일을 쟁취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문제에 매달려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일의 선물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매달려 하루 빨리 해결의 열쇠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남쪽에서 토지 가치세라는 열쇠를 만들어 내고 북쪽에서 공유 토지 사용권의 시장

145) 헨리 조지는 토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토지 개량권을 완전히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최고 가격 청약자에게 각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지대가 공동체에 귀속될 수 있음을 밝혀 두었다. 헨리 조지, 위의 책, 150쪽.

146) 崔秀雄, 「中國의 土地使用制度分析」,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1992. 14-35쪽.

거래라는 열쇠를 만들어 낸 다음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 한국은 한동안 두 가지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도 좋고, 바람직하다면 한 열쇠를 다른 열쇠처럼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열쇠의 모양을 바꿀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열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에게 도둑맞지 않게 하는 일이다. 통일 한국의 토지 제도가 법률적 사유와 토지 가치세에 의한 지대의 공동체 귀속을 원칙으로 삼건, 법률적 공유와 토지 사용권의 시장 거래에 의한 토지 가치의 공동체 귀속을 원칙으로 삼건, 공동체에 귀속된 토지 가치를 정권을 장악한 소수의 무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쓰지 않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쓴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록 존슨이 말했듯이, "소유물에 대한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고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그는 그 소유물을 통제하는 사람의 명백하고 은밀한 속임수에 상처를 입기 쉽다."<sup>147)</sup>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하여야 하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을 일으킨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벧전 2:13)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행 5:29)하기 때문이다.

불의한 토지 제도 때문에 궁핍과 비참이 생기고, 무지와 야만이 생기며, 우리 민족의 분단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될 것이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의 쓰린 맛을 보기도 할 것이다. 사탄이 이들에게 주는 "가장 나쁜 생각은 노력과 희생을 해 보아야 희망도 결과도 없다는 생각이며 이런 생각은 최선의 인물 또는 가장 용기 있는 인물에게도 찾아 온다."<sup>148)</sup> 이 나쁜 생각을 물리치려면 밝은 믿음의 눈과 굳센 믿음의 발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한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지식인들은 "병어리개"(사 56:10)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땅을 훔친 도적들이 달아날 때까지 쉬지 않고 쫓아야 한다.

그 파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사 56:10~11)

147) 록 존슨, 위의 책, 205쪽.  
148) 헨리 죠지, 위의 책, 238쪽.

## 하나님의 백성과 토지

-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경세관 -

이 풍

한국헨리죠티협회 회장

성수 대교가 폭격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일터나 학교로 가는 길에 물에 빠져 죽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터졌을 때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해서 관청의 이름이나 바꾸고 장관 감투를 벗겼다 썩었다 하는 일이 무슨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보도된 바람에, 그리고 한 해가 가고,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것도 없는 새해가 또 온 바람에, 이른바 세도(稅盜)들의 기막힌 도적질이 슬금슬금 망각 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도세(盜稅) 주식 회사'라는 난생 처음 들어 본 범죄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회한한 도적질이 지구촌의 여러 이웃들에게 두루 알려졌기 때문에 뒤늦게 '세계화'를 추구한답시고 법석만 떨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ROTC의 하나로 비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ROTC란 총체적인 부패 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을 사람들이 줄여 부르는 말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들고도는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아무나 "다 도둑놈인데 뭘"이라는 부끄러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도 듣는 사람들이 대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서너 집 건너 한 집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나 있는 나라가 어째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커다란 이유는 교회 안에서 찾아내지 않을 수 없다.

### 교회의 비극

대천덕 신부가 똑바로 지적했듯이, "수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20세기의 전환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를 선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sup>1)</sup> 이 비극은 21세기를 곧 맞게 될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교회들이 아직도 연출하고 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설교 제목으로 삼는 성직자들이 요즈음에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도적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적질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 구

1) 대천덕, 「신학과 사회」, 대구: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출판부, 1994, 50쪽.



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도적질이 그저 돈을 좋아하는 탐욕스런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고하는 설교만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도적질이 크게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똑바로 알고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성직자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쇠고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세금 도둑들의 모습이 언론 매체에 크게 실렸을 적에,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관련되는 도적질은 기본적으로 탈세와 도세 두 가지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세금의 징수 그 자체가 대개의 경우에 본질적으로 집권 세력과 관료 집단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로부터 땀 흘려 번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도적질과 다를 바 없는 징세

일찍이 톨스토이는 「우리 시대의 노예 제도」라는 책에서 “역사는 세금이 결코 모든 사람의 동의 아래 제정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지배자들이 공적인 필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썼다.<sup>2)</sup>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조선 왕조 시대의 가렴주구에 이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게으름 피우며 일부러 하지 않으면서 쓸데 없는 규제와 허가를 악용하여 검은 돈을 뜯어내는 데에도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수두룩한 관청들이 마치 무슨 유익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는 세금이 도적질한 돈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담대하게 밝히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에는 왕창 부과되지만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소수 대지주들이 지대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차지하는 막대한 불로 소득에는 쥐꼬리만큼만 부과되는 세금이, 그것도 참외밭으로 쓰던 땅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고 거름 냄새가 나던 벌판을 새 도시로 둔갑시켜 벼락 부자를 양산하는 일에 쓰이는 세금이, 이렇고도 모자라서 또 영종도를 국제 공항 도시로 둔갑시키고, 가덕도를 공업 단지로 둔갑시켜 미리 할 값으

2) 레오 톨스토이, (정현구·김의훈 옮김), 「우리 시대의 노예 제도」, 서울:무실, 1992, 68~69쪽.

로 땅을 사 둔 사람들을 벼락 부자로 만들어 내는 일에 쓰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금이, 도적질당하는 돈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집권 세력과 관료 집단은 국민들이 법에 규정된 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를 한다고 도둑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그들의 돈을 강탈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의 돈을 강탈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세금을 멋대로 거두어 멋대로 쓰는 집권 세력과 관료 집단을 가리켜 ‘강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무척 힘들다.

왜 그런가? 한가지 까닭은, 다섯 가지 탈을 쓰고 마치 백성들을 위해 무슨 큰 일이나 하는 척하면서 버젓이 도적질을 하다가 어느 시인에게 들켜 그의 담시 속에서 도둑놈 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재판관을 통해 그를 죽이려 했던 지배 계층의 강포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까닭은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 늘어놓는 서투른 궤변과 이들에게 밭줄이 달려 있는 지식인들이 일자리를 지키려고 덩달아 늘어놓는 세련된 궤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지주들의 궤변

일찍이 선지자 미가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쉼사하도다”(미 6:12)라고 말했다. 그런데 무척 센 힘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처음부터 강포함을 보일 필요는 없다. 그들의 힘을 잘 아는 지식인들은 노골적인 협박을 받지 않아도 대체로 그들을 대변하는 일을 잘 한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국민 학교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에게 세금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왜 내야 하는지를, 그 세금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저 ‘납세의 의무’라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그 작은 두뇌 속에 집어 넣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일 학교 선생님들은 어린 신자들에게 십일조와 그 밖의 헌금은 무슨 일을 위해서 왜 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저 착한 어린이는